

목포시립교향악단 정상화 그 후 100일

다시 울리는 '화합의 화음' '예향 목포' 명성 되찾는다



최영철 지휘자.

8개월 동안 파행을 겪어온 목포 시립교향악단(이하 시향) 사태가 정상화 된지 100일이 경과했다. 정리하고 등을 돌려싸고 파국으로 치달던 시향 사태가 지난 5월 14일 극적으로 일단락된 이후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그동안의 과정을 살펴보고 남은 과제는 뭘까를 짚어봤다.

전국 공공운수 사회서비스 광주·전남지부 목포시 예술단지회(이하 노조)가 결성되고, 노조에 가입한 단원들의 연습 태만과 근무시간 임의조정 등 파행이 지속됐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가 시립예술단 운영예산을 40% 삭감시키면서 시향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변했다. 이를 빌미로 시는 정리하고 카드를 꺼내들었고, 이후 시향 노조의 잇따른 시위와 집회가 이어졌으며, 급기야 시는 4월 17일 자로 27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이로 인해 시향 사태가 지역사회 이슈로 부상하면서 이를 수습하기 위한 협의가 잇따랐다. 조정 및 중재(2회) 등을 거쳐 지난 5월 14일 시향 노조가 목포시의 합의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날 합의를 통해 목포시는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며, 시향 노조는 고소·고발 등 외부 민원을 철회하고 그동안 분규에 대한 노조차원의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정상화 이후=시향은 정상화 이후 새로운 선장을 맞이했다.

목포 출신인 최영철(63) 지휘자는 "단원들의 진화·단결에 주안점을 두고, 예향 목포를 항상 머릿속에 새겨 그 명성에 걸맞은 시향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며 "구체적인 비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시향은 최 지휘자 부임 이후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6월 서울 오라토리오를 목포로 초청해 '세월호 추모 음악회'를 연데 이어 7월에는 정기 공연도 개최했다.

또 1일에는 시향과 시립 합창단(지휘자 김철웅)이 함께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서울 오라토리오 오케스트라 제57회 정기연주회 '인도인 드보르작 스타바트 마테르-위대한 유산 시리즈 5'에서 초청 공연을 펼친다.

합인호 노조 지회장은 정상화 이후 변화에 대해 "그동안 음악적 활동에 미진한 부분을 파악해 활성화를 위해 모두 노력하고 있다"면서 "단원들의 음악에 대한 자세가 적극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시향에 대해 다소 강경 입장을 보여 온 목포시의회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7월 1차 추경 예산 심의에서 시립예술단 관련 예산 6억3000만원 가운데 5000만원을 삭감한 5억 8000만원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이달부터 발생할 임금체불에 대한 우려가 해소돼 사실상 시향 정상화의 결실들은 사라진 셈이다.

남은 과제=가장 시급한 과제는 신뢰 회복이다. 시



목포시립 교향악단이 정상화된 지 100일이 지난 가운데 시민들은 하루빨리 시향이 시민의 품으로 되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내 시향 연습실에서 공연 준비에 몰입하고 있는 시향단원들.

8개월 파행 일단락

시, 정리해고 철회 예산 추경 반영 노조, 고소·고발 철회 대시민 사과

정상화 이후

목포 출신 최영철 지휘자 부임

단원들 연습 구슬땀... 잇단 공연 개최

남은 과제

노조원·비노조원, 시민 신뢰회복

단원 응원·시의회와 관계 개선 필요

민들의 끈지 않은 시선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역 예술계 인사들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자구 노력을 보여주면서 '그들만의 전차'가 아닌 시민이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는 시

민을 위한 예술단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찾아가는 음악회 등을 더욱 확대시켜 시민 곁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 줄 때라고 지적한다. 또 잠재돼 있는 단원들 간의 반목을 완전히 털어내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다.

비노조원 출신의 한 단원은 "노조원과 비노조원이 한 보편대(譜面臺) 위의 악보를 보면서 연주를 하는 경우가 있다. 걸음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일 반 가정에서 싸움이 일어나도 한 가족이기 때문에 풀이지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음악 나눔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노력으로서 소임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해, 생채기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무엇보다 예산을 전 시의회와의 관계 개선도 필요하다. 소관 상임위 조인한 위원장은 "시향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는 물론 지휘자와 단원들의 개별 면담도 고려중이다"면서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향 정상화를 위해서는 객원 지휘자가 아닌 상임 지휘자 선임과 부족한 시향 단원의 충원 등 내실을 다지는 것도 남아야 할 걸림돌이다.

극심한 내홍(內訌)을 겪은 시향. 아픔을 겪은 만큼 성숙해질 것이라는 격려와 함께 하루빨리 시향이 시민의 품으로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kwangju.co.kr

“목포시 채무 감당 못할 수준 아니다”

부채 해결방안 토론회...“문제는 가용재원 부족”

목포시의 채무가 증가했지만 감당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 교수는 “목포시 재정 위기 극복”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목포시가 갚아야 할 빚이 3000억원이 넘는다는 일부 보도는 부채와 채무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문제는 가용 재원의 부족”이라고 전제하고 “목포시의 내년 가용재원이 100억~300억이라는 수치는 시 규모가 아닌 자치구 수준에 불과하

다”며 지출재량 여지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목포시 재정난의 원인으로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수입 감소 ▲경기에 따른 지방세 감소 ▲사회복지 지출 증가 ▲매정사업으로 인한 지출 증가 ▲SOC분야 지출 증가 등을 꼽았다. 특히 정 교수는 목포시의 대응 방안으로 꼭 ‘해야 할 사업(have to do)’ 보다 ‘하고 싶은 사업(want to do)’을 선호할 수 있어 하드웨어적 사업비 지출에 대한 우선순정과 ‘규모의 경제’를 도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현재 시가 추진 중인 pay-go(지출상쇄 원칙) 뿐만 아니라 spending caps(지출상한제)의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장 ‘아이스 버킷 챌린지’ 동참

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장이 지난 31일 시의회 청사 앞에서 루게릭병 환자들을 돕기 위한 캠페인 ‘아이스 버킷 챌린지’에 동참했다. 조 의장은 앞서 30일 전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 강성후 위원장의 지목을 받았다.

조 의장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번 캠페인에 동참함으로써 그분들을 위한

일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시길 바란다”며 “시의회에서도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살피고 시민 모두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의장은 다음 참가자로 박홍을 목포시장과 고승남 목포시의회 부의장, 김광수 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을 지목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경동 119 안전센터 추석맞이 어르신 위안잔치

목포소방서(서장 차덕운) 경동 119 안전센터와 목포시 의용소방대 경동지대(대장 김종갑)는 지난 27일 유달동 주민센터에서 관내 독거노인50여명을 초청해 추석맞이 지역 어르신 위안잔치를 마련했다.

사랑나눔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독거노인들에게 선물세트와 전담하고 떡과 음료 등을 대접했다. 또한 '에그리나 앙상블' 팀의 재능기부로 우쿨렐레와 오카리나, 색소폰 연주도 펼쳐졌다.

의용소방대 경동지대와 경동 여성지대(대장 정운자) 대원들은 각종 재난발생시 소방력을 보조해주는 지역사회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관내 불우이웃을 찾아 참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목포소방서 김인순 소방과장은 “어려운 이웃이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아름다운 사회구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www.oceanoccc.co.kr

선착순 한정판매

이제부터 반값에 골프친다

대중골프장의 저렴한 그린피를 한번더 저렴하게
골프 대중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오시아노 대중골프장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 1064

예 약 : 061)536-1000

선불 할인 카드란? 일정 금액을 카드에 충전 후, 골프장 내장 시, 프론트에 카드를 제시하시면 별도의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시고 할인율에 따라 할인된 금액이 카드에서 차감 됩니다.

- 선불 카드 할인표 -

충전금액	200만원	400만원	900만원
그린피 할인율	기명1인 40%	기명1인 50%	무기명(팀)전원 40%
주중/주말			

공통 혜택

- 캐디 선택제
- 골프장 내장시 카트비, 할인된 그린피
- 가 충전 금액에서 차감
- 1일 18홀 적용

- 요금 안내 -

구분	금액	비고
입장료	주 중	60,000
	주말(공휴일)	90,000
팀당 카트비	60,000	캐디 선택제
팀당 캐디피	100,000	

Event 2부 내장객 9홀 추가시 주중3만원/주말4만5천원 (카트로 포함)

구매문의 061-536-3953